

‘인천혁신모펀드 제3호 조합’ 협약 체결

인천시, 청년창업에 80억 지원 액셀러레이터 업체 표창 수여

인천시가 혁신모펀드 제3호 조합 조성으로 청년창업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1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혁신모펀드 제3호 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에 본사를 둔 액셀러레이터(AC) 업체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인천혁신모펀드 제3호 조합’펀드의 총 결성 규모는 80억원으로, 인천시와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인하대학교, 아이스타트업랩,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기관이 협약에 참여한다.

협약체결 주체들은 향후 자금 출자뿐만 아니라 우수기업 발굴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돕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융합과 협업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와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은 우수한 유망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협력한다.

이번 펀드는 기업 직접 투자가 아닌 개별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Fund of funds) 형식의 조합으로, 인하대와 인천대가 투자를 확정하면서 각 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혁신모펀드 제3호 조합 업무협약 및 액셀러레이터 표창패 수여식에서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계해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벤처·창업 기업 투자유치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대표 또는 청년 비중 50%이상인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올해부터 3년간 2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자하고, 펀드 운용사는 3배수 이상인 180억원 규모를 지역 청년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표창패를 받은 (주)강고스프링은 이달 판교에서 인천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했으며, (제)넥스트셀리자이는 지난해 2월 인천에 창업한 AC이다.

시는 청년을 위한 펀드조성과 지역 AC업

체 유치를 통해 투자와 정책적 지원의 선순환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창업 중심 도시로 위상을 확립해 우수 청년·창업기업이 인천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의 창업기업도 인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후 인천지역의 민간출자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투자생태계, 더 나아가 인천경제가 들쭉날쭉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단체에 이어 대학까지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

리며, 벤처투자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인천시가 벤처투자 및 청년창업의 블루오션으로 더욱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인천은 투자생태계 불모지였으나,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기금을 활용해 인천혁신모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기점으로 인천시에 현존 제1호 벤처캐피탈사 본사가 판교에서 인천시로 이전했고, 유수의 액셀러레이터(AC)들도 계속해서 인천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등 인천의 투자생태계가 꿈틀되고 있다.

안중삼 기자

안테나

공동체 ‘이음텃밭’ 참여 시민추가 모집

이음텃밭 운용 공간을 확대 조성한 인천시가 오는 21일부터 참여 시민을 추가 모집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송도동 28-1번지 일원에 조성한 인천형 공동체 이음텃밭(인근 유휴지에 텃밭 5250㎡를 추가로 조성하고 참여자를 확대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이음텃밭은 기존 주말농장 방식의 단순한 분양형태가 아닌 도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환경과 생태를 매개로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이웃과의 만남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참여자들은 한 달에 1시간 이상 농작물 및 경관작물 가꾸기 등의 이음텃밭 자원 활동을 해야 하며, 텃밭 수확물 기부활동의 정기적 참여도 요구된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송도 국제도시 내에 9500㎡ 규모의 텃밭을 조성하고 400여 명의 시민·도시농업전문가들과 함께 시민텃밭(92개소)·공동체텃밭(23개소)·어울림 ‘사회복지’텃밭(8개소)등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 5250㎡를 추가 확보한 인천시는 310개의 시민텃밭을 추가로 조성해, 총1만4750㎡ 면적에 434개의 텃밭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중삼 기자

인천 농업기술센터, 전통장담그기 교육 진행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전통장담그기 교육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장 만드는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교육해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문화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인희재’에서 진행되며 오는 30일 장 담그기를 시작으로 5월 장 가르기, 11월 장 나누기, 12월 메주 쫄기 등 장 만드는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농업·농촌, 식문화와 봉사에 관심이 많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장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 가능하고 장을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전시 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안중삼 기자

인천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가저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양성평등센터 성별영향평가팀(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은 16일 오후 재단 2층 북합미디어실에서 ‘2022년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상반기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진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22년 인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위촉식 및 컨설턴트 역량강화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의 주제는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컨설팅 : 젠더 이슈로 법무법인 문화 소속 김현아 변호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올해 인천의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컨설턴트의 역할과 과제를 토론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교통공사,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15일 굴현차량기지에서 ‘2차년도 지상부 전차선로 개량공사 안전협의체 회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준공한 1차년도 전기설비 개량사업에 이어 실시되는 2차년도 노후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노후 콘크리트 전주 외 10개 설비를 개량하는 지상부 전차선로 개량공사를 시작으로 변전설비, 수송배전설비, 역사전기 등 4개 분야 전기설비 개량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전협의체 회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시공업체의 안전 관련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정일봉 기술부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와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성공적인 개량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안전협의체 운영과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 연구시설 송도 건립

인천경제청, 토지매매계약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아시아시장 허브 도약 최선”

우리나라 1위이자 세계 5위의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의 연구시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에 건립된다. 대기업 위주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주를 이루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산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주)마크로젠과 송도 내 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마크로젠의 김창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송도 산업·연구시설 용지 내 우수기업 연구소 유치 공모 결과 마크로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근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마크로젠은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B) Ks10-1필지(송도동 210-2번지)의 면적 6,017㎡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지놈 캠퍼스’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에 착공하여 오는 2024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마크로젠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연구시설을 확장·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설립된 마크로젠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이다. 153개국, 1만 8000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50%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스페인 등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와 함께 마크로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규제특례 1호 기업으로 송도에서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송도 생활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개인 유전자 분석 검사 실증 연구다.

마크로젠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전체 분석 빅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지놈 파운드리(GenomeFoundry)’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연구시설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바이오 산업 구조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훈 마크로젠 대표는 “송도 글로벌 지놈 캠퍼스가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도시산업선교회 갈등 해결에 총력

인천시, 이달 중 조합·교회와 3자협의체 5차 회의 개최예정

인천시는 동구 화수화평재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산업선교회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3월 중 조합 및 교회 측과 3자 협의체 5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수화평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09년 9월 도시계획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돼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시공사가 선정되고, 일대 지역 18만㎡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83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10여 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1961년 미국 감리교의 조지오글 목사에 의해 설립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그동안 빈민과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고, 특히 1978년 이른바 ‘동일방직 사건’ 때 여성노동자들이 피신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뜻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안중삼 기자

인천관광 스타트업 공모 실시

인천시, 4개분야 19개사 선정 최대 4천500만원 자금 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혜택

인천시가 18일부터 ‘2022년 인천관광 스타트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창업 7년 이내의 관광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4개 분야에서 총 19개 내외의 관광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창업 7년 이하 기업) △지역상생 관광벤처(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인증기업) △예비

관광스타트업(예비창업자 및 대학생) △재창업 관광스타트업 등 4개 분야다. 특히 관광업종으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해 재창업 관광스타트업 분야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화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는 최대 45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 입주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스타트업 고도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팅과 예비(재)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과정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 밖에 실제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를 개최해 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안중삼 기자

‘놀이터 중심 도시재생’ 실현...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위 실태조사 발표... 놀이터 답사 진행

인천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놀이터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어린이 놀이터(남동구 간석동)를 방문했다.

유세움 위원장, 인천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 놀이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계획 브리핑, 해당 놀이터 현장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

이터 실태파악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정책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세움 위원장은 “그간의 놀이터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획일화된 놀이터 조성, 놀이터 주변의 환경, 놀이터 접근측면의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놀이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 수요자 친화적인 놀이터가 되도록 조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놀이터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어린이 놀이터를 방문했다.